

지역 매아리

김제시 의료급여심의위 개최

김제시는 30일 이후전 김제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의료급여 심의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출석심의를 개최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일수는 질환별 365일로 장기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건에 대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한 후 연장승인을 통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날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 113건에 대해 신청자의 질환, 의사의 검토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모두 승인했다.

연장승인 심의가 의결되면 만성고시질환은 90일 연장하여 455일, 기타질환은 90일씩 2회 연장으로 545일까지 급여일수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후전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질병대비 과다의료이용자들이 합리적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분별한 의료 이용자는 연장불승인 하는 등 심의를 강화하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구면 효사랑실버보행기 전달

김제시 금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권혁윤)에서는 최근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 및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실버보행기 25대를 구입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관내 업체인 삼진라인(대표 이상환)에서 지정기탁한 후원금으로 구입한 실버보행기는 금구면복지기동대원들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 직접 전달하여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실천하였다.

권혁윤 위원장은 "실버보행기 전달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관심을 갖고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관내 어르신들이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서원태 금구면장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운동이며, 집에만 계시던 어르신들이 스스로 외출하고 운동하시도록 하여 어르신들께서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모시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바자회에서 문화 다양성 알려

완주 가족봉사단 페스타 인 누에 참여... 다문화 놀이체험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김양이 센터장) 가족봉사단이 완주군 북합문화지구 누에에서 진행한 '페스타 인 누에'에서 마켓 바자회를 열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며 높은 호응을 받았다.

30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따르면 가족봉사단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완주군 북합문화지구 누에 일대에서 진행된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및 '페스타 인 누에'에 함께 참여해 페스타 인 마켓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가족봉사단은 완주군 내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선봉기 지원과 청소년 봉사단 창단 기념 마련을 위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가족봉사단 회원들은 각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의류, 신발, 도서, 장난감, 생활 잡화 등 약 500여점을 기부하고, 행사 당일 직접 판매했다.

이뿐 아니라 일본의 와나베, 하네초기, 베트남 개우, 피리핀 씨빠, 중국 짜엔즈, 몽골의 샤이어, 우즈베키스탄의 도이라 등 다문화 놀이



30일 완주군 북합문화지구 누에 일대에서 진행된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및 '페스타 인 누에'에 함께 참여해 페스타 인 마켓 바자회를 열었다.

체험과 다문화 의상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해 문화다양성 의식 확산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글로벌 푸드 나눔 행사인 '레시피로 소통하는 식탁 SO식'을 운영해 분짜, 금어교, 부코샐러드, 초이왕, 호르슈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다양한 메뉴의 레시피 및 음식나눔을 통해 행사 참가자들의 열린 호응을 받았다.

봉사에 참여한 한 가족은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집에서 바자회에 내놓을 물건을 고르고, 나와서 이렇게 직접 물건을 팔아보니 힘들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선봉기도 지원하고, 문화다양성 확산에 기여 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을 보내게 돼 더욱더 보람이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사업별 부처 예산 반영 현황 점검·기재부 심의 대응 논의

김제시는 지난 29일 이후전 김제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실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제시는 지난 29일 이후전 김제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실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2019년 부처별 예산편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39건의 신규사업(2019년

요구액 475억)과 32건의 계속 사업(2019년 요구액 420억) 등 총 71개 사업(2019년 요구액 895억)에 대한 부처예산 반영 상황을 점검하고 기획재정부 심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우선 현재 내년도 사업대상 확정을 위해 공모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북도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19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다. 부처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사업별 미반영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국가예산확보 전략을 재수립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사업, 국립 새만금 간척지 농업연구센터 등은 대통령 공약이행과의 연계성을 부각하여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추가로 예산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양파 수확철 맞아 농기계 보강

양파장비 2종 16대 추가 공급

완주군이 양파 수확철을 맞아 필요한 장비를 보강,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30일 완주군은 농작업 대행 장비 지원 사업 이용 농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양파 농작업 대행 장비를 추가로 구비했다고 밝혔다.

올해 구비된 장비는 일시에 두둑을 만들고 풀이 나지 않도록 제초제를 처리하며, 동시에 비닐피복을 할 수 있는 휴입복토기 등 2종 16대로 완주군은 이를 농협에 공급했다.

박성일 후보는 2016년과 2017년에 양파 농작업 대행 장비인 양파 정

식기 등 10종 20대를 2개의 농협에 공급해 농가의 일손을 크게 절감했다.

이들 농기계는 농작업이 어려운 퇴비 뿌리기, 종자파종, 옮겨심기, 수확 등의 농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농업 경영비를 절감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김중욱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작업 대행 장비 지원을 계속 해서 추진하고 농업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신기종을 도입하는 등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다양한 문화관광체육 정책 약속"

박성일 완주군수 후보



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닦을 것임을 역설했다.

또한 문화 분야로 △삼례문화예술촌 3단계 추진 △주민생활문화(르네상스 완주) 활성화

박성일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후보는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의 공약 추진을 통해 삶의 질을 더 높일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성일 후보는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완주 방문의 해 추진 등 관광, 주민생활문화 등 문화,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연차적 조성 등 체육 분야에 관한 공약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우선 △완주 방문의 해 추진 △완주군~무진장 권역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완주 남만기도 조성(대아 및 동상저수지) △대문산 관광지반 확장 △찾아오는 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상관 등) △어린이·청소년 체험관광 랜드마크 구축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경천저수지 일원) 등으로 '완주관광 1천만 시대'로

△아파트 르네상스 2단계 시행 △완주정신 부흥 프로젝트 등을 통해 주민참여형 문화가 만개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특히 최근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이와 연계한 동물보호 정보교육센터 조성, 동물복지농장 확대, 동물복지 안전축산물 생산(인증제 등) 등을 펼침으로써, 동물 보호 및 복지의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임을 제시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 후보 "강력한 여당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 출정식 거리유세 공식 선거전 돌입

더불어민주당 박준배 김제시장후보는 31일 도의원과 기초의원 후보자들과 함께 터미널 사거리에서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다.

이날 출정식은 박준배 김제시장후보와 김춘진 전 국회의원(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위원장), 이종걸 국회의원, 도의원 및 비례대표 후보 등 총 17명의 후보들이 총집결해 시내 퍼레이드를 벌인 후 김제전통시장으로 이동 거리유세에 나선다. 공식선거 첫날 박준배 김제시장후보는 "존재감 없는 야당 후보로는 무너진 김제경제와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어렵다"면서



"지금쯤 힘 있는 여당후보가 필요할 때이라며 강력한 여당후보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을 호소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 민생안정'을 최

우선 과제로 공약을 제시한 박준배 김제시장 후보는 "지평선산단의 기업유치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청장년들의 일자리 창출 등 김제 경제도약시대 창출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Hongsamju' (Red Ginseng Wine) by Jinan Gwon. The ad features a large bowl of ginseng soup, ginseng roots, and bottles of the wine. Text includes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Korea's Red Ginseng Special District Jinan Gwon),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World Liquor Tasting Competition Gold Medal), and '真心 홍삼주' (Sincere Heart Red Ginseng Wine).